

독립서점 ‘지금, 여기’ 독서를 묻다



광주문화재단이 '2025 광주 올해의 책 도서전'을 오는 14일까지 전일빌딩245에서 연다. 독립서점이 큐레이션한 서적들(왼쪽)과 스탬프투어 체험존의 모습.



광주문화재단 14일까지 전일빌딩245 '지역서점 팝업스토어 도서전' 전국 독립서점 32곳 참여 무인 운영... 전시·체험·굿즈 마켓 등 풍성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바야르는 '예상 표절'이라는 도발적인 개념을 통해 문학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작가가 미래의 작품이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포클레스가 프로이트를, 볼테르가 코난 도일을 '미리' 표현한다는 역설처럼, 오래된 텍스트는 종종 오늘의 독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다.

과거에 쓰인 문장이 지금의 현실과 기묘하게 겹쳐질 때 우리는 문학의 현재성을 실감한다. 한 해의 끝자락, 전국 32개 지역 독립서점이 광주에 모여 '지금, 여기'의 독서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4일까지 전일빌딩245에서 '2025 광주 올해의 책 도서전'을 연다. 지역서점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마련된 이번 도서전은 전시·체험·마켓이 어우러진 무인 도서전으로 운영된다. 독립서점의 큐레이션을 한 공간에 집약해 단순한 판매를 넘어 책을 다시 사회적 의미로 호출한다는 취지다. 광주문화재단의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의 기획과 운영은 광주 지역 독립서점 '책과생활'과 '예지책방'이 맡았다.

특히 이번 도서전은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

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한국 문학이 다시 광장의 언어로 불러 나온 흐름 속에서 책이 어떻게 다시 현재의 언어가 되는지를 서점의 시선으로 묻는다. 출간 시기나 베스트셀러 순위가 아니라 지금의 사회와 맞닿은 책들이 이번 도서전의 기준이 됐다.

도서전은 전시·체험·마켓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는 '전시' 섹션에는 전국 32개 독립서점이 선정한 '올해의 책' 속 핵심 문장이 엮서 형태로 소개된다.

"늑대에게만 자유를 주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라 죽음의 사회입니다. p.16"과 같이 문장만 제시될 뿐 책 제목과 저자명은 감춰져 있다. 대신 서점 이름과 페이지 수가 힌트로 주어진다. 관람객은 문장 하나를 단서 삼아 책을 추리하고 텍스트가 지닌 울림에 먼저 귀 기울이게 된다.

'체험' 존에서는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책 속 문장과 단어 스탬프를 조합해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고, 세상에 하나뿐인 엽서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문장을 읽고, 고르고, 조합하는 과

정을 통해 책을 눈이 아닌 손 몸으로 감각하게 하는 것이다. '도서 굿즈'를 사랑하는 독자들을 위한 '마켓'도 마련됐다. 참여 서점이 추천한 도서 60여 종과 직접 제작한 굿즈가 함께 소개된다. 책 방지기들이 직접 쓴 추천사가 담긴 책갈피는 관람객의 선택을 돕는 작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리 작가의 '나나 올리브에게', 정대건의 '급류', 오찬호의 '납작한 말들' 등 서점이 고른 책들은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도서전을 기획한 책과생활 신현창 대표와 예지책방 차에대표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오래된 책이 다시 오늘의 언어로 읽히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2024년 12월의 기억과 광장의 경험을 지나 곧 2026년을 맞는 이 시점에 전국 책방지기들이 주목한 책들을 한자리에 모아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재단 배동환 사무처장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많은 지역서점이 이번 실험에 가까이 동참해 줬다"며 "전일빌딩245라는 역사적 공간에서 좋은 문장이 책과 독서 굿즈로 이어지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지역 서점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과 책과생활·예지책방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담긴 시대 의미는?

광주·전남발전협의회, 광주향교 유림회관서 오늘 학술세미나

우리 역사에서 호남은 역사적 변곡점마다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海無國家)는 그런 호남의 역할과 정신을 강조한 말이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호남의 정신을 강조한 말로 현대사에서도 곧잘 인용되곤 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담긴 시대적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가 11일 오전 9시30분 광주향교 유림회관에서 펼쳐진다.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시대적 의미'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는 일환으로 기획됐다.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3개의 주제 발표된다. 김덕진 전 광주교육대 교수가 '임란 난주 의병'

을 발표하고 김영태 전남대 교수가 논평한다. 나영훈 목포대 교수의 '담양 회맹 의병의 활동과 추성창의의 의미'를 주제로 한 발표에 김희태 전 전남도 문화유산 전문위원이 토론을 한다.

마지막 아육 순천대 교수의 '광양 구례의 의병 항쟁과 성격' 발표에 정세훈(목포대 사학과)이 토론을 한다.

김중재 회장은 "충무공 이순신의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시대적 의미를 조명하고 국난극복에 앞장선 나주, 담양, 구례, 광양 등 남도의병의 결기를 조명하여 지역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두 번째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화배우 김지미 별세

불꽃 같은 삶 산 '은막의 여왕' 700편 작품 남기고 별이 되다

1960~70년대 한국영화 주역 '길소뜸'·'토지'로 여우주연상 스타들과 결혼·이혼 화려했던 삶 제작자·행정가로도 활동 활발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본명 김명자)가 별세했다. 향년 85세.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10일 "김지미 배우가 한국시간 지난 7일 오전 4시 3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평소 심장 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고인의 직접적 사인은 저혈압으로 인한 쇼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미국 현지에서 화장이 끝났으며 오는 12일 고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것을 고려해 별도의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릴 계획이다.

1940년 충남 대덕군에서 태어난 김지미는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 (1957)로 데뷔해 1990년대까지 작품을 남긴 한국 영화계의 대표 스타 배우다.

'토지' (1974·김수용), '길소뜸' (1985·임권택) 등을 통해 거장들과도 호흡하며 파나마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대중상 여우주연상 등을 수상했다. 그가 출연한 작품은 700여편에 달한다.

2010년 '영화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당시 불은 '화려한 여배우'라는 타이틀은 그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고인은 덕성여고 재학 시절 미국 유학을 계획하던 중 우연히 김기영 감독에게 '길거리 캐스팅' 되면서 17세에 배우의 길을 걷게 됐다. 데뷔하는 과정에서 얻은 예명 '김지미'가 배우로서의 이름이 됐다.

성공적인 데뷔로 주목받은 그는 이듬해 멜로 영화 '별아 내 가슴에' (1958·홍성기)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비 오는 날의 오후 3시' (1959·박종호), '장희반' (1961·정장화) 등에 출연하며 1960년대까지 이어지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를 수놓았다.

고인의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는 당시 관객들을 매료시킨 지점이었다. 살인 사건의 중심에 선 묘령의 여인을 연기한 '불나비' (1965·조해원)는 그의 '팜프파티' 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거론된다.

흥행 멜로 영화를 함께 만들어 간 홍성기 감독, 당대 인기 배우 최무룡, 가수 나훈아 등과의 결혼 및 이혼은 스타로서 화려했던 삶의 일면을

보여준다. 할리우드 스타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비견되기도 했다.

고인은 연기자로서도 넓은 지평을 보여줬다. 김수용·임권택·김기영 등 거장들과의 작업은 연기의 한계를 시험하는 장이었다.

'토지' (1974·김수용)에서 대지주 가문을 이끌어가는 안주인 역을 맡아 파나마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과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영화 '만주'의 리메이크작 '육체의 약속' (1975·김기영)에서 사랑에 빠진 죄수 역할로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각각 받으며 연기력을 입증했다.

이산가족 아들을 찾아 나선 중년 여성을 연기한 '길소뜸' (1985·임권택)은 고인 연기력의 백미로 꼽힌다. 후시 녹음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완숙한 연기를 보여준 고인은 이 영화로 대중상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고인은 제작자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85년 제작사 '지미필름'을 설립한 뒤 '티켓' (1986·임권택)을 비롯해 7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명자 아끼고 쓰냐' (1992·이장호)까지 그가 출연한 작품은 700여 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unesco
World Heritage site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 유산면적

면적	한계 (km²)	유산지역 (km²)	완충구역 (km²)
총면적(km²)	2,030.03	1,284.11	745.92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km²)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1,497.24km²)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km²)의 약52%를 차지

탁월한 보편적 가치 (OUV)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의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정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수평선만 보이는 북대서양 연안의 외딴해 갯벌

산과 섬에 둘러싸인 절경을 보이는 한국의 갯벌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갯벌 위에 새겨진 기하학적 모양의 조수로

자연이 선명한 아름다운 조수로

갯벌 위의 수채화

새들의 휴식적인 사위와 일반서식지

갯벌 위에 춤추는 무희, 사위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퇴적체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갯벌로 다른 행성을 보여주는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쾨롱어 싸움, 염낭개,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콘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철새이동

철새의 먹이활동

서식굴

쾨롱어 영역싸움

갯벌의 청소부 염낭개

염생식물의 역할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VR로 떠나는 생생한 갯벌 탐험

직접 만지고 만드는 생태 교육 체험

내 손으로 만드는 미니 갯벌 생태계

갯벌 생태계를 직접 구성해보는 활동